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연결물류 시장, 2022년까지 연평균 33%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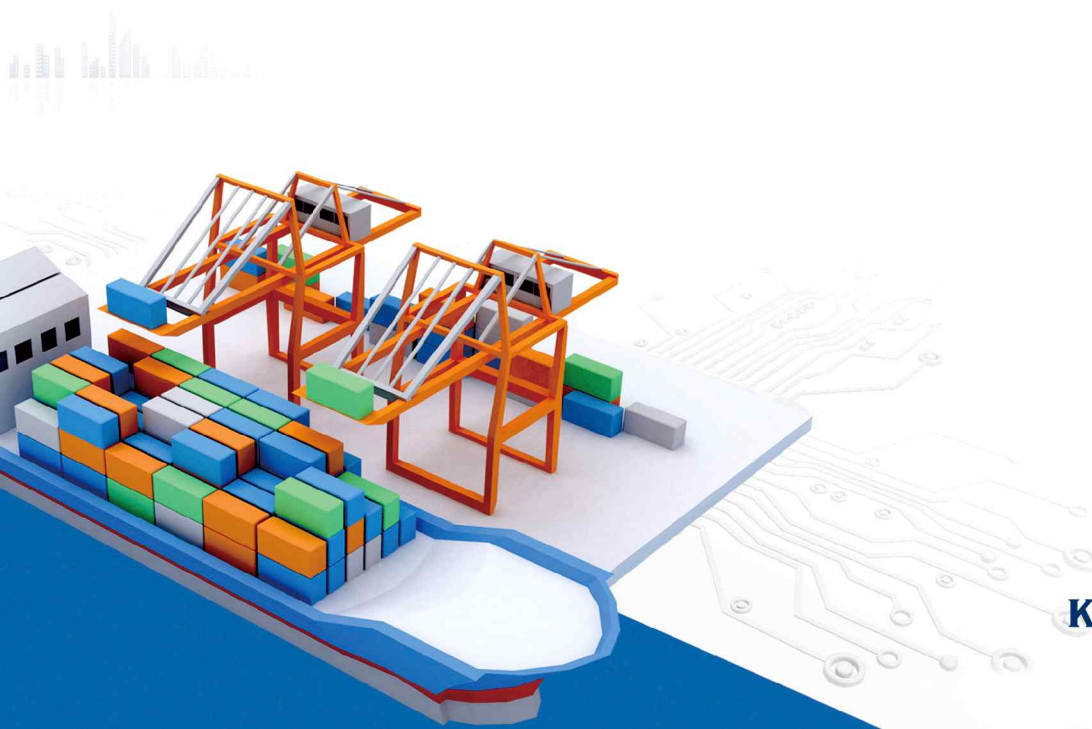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기후변화에 취약한 세계 주요 길목, 글로벌 식품 공급 위협
2. 중국 알리바바 그룹, 선사 및 운송사와 협력 확대
3. 해운업·단체, 친환경 해운산업 조성 노력 지속키로
4. SM상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서비스 확대

명사 스피치

"...With the ongoing technological disruptions in the global supply chain, and as bigger ships, larger alliances and increased consolidation continue to impact the maritime industry, PSA remains committed to investing in and upgrading our people, facilities and processes to meet the customers' evolving needs."

Mr Tan Chong Meng
Group CEO of PSA international
(2017. 6. 30. / PSA Press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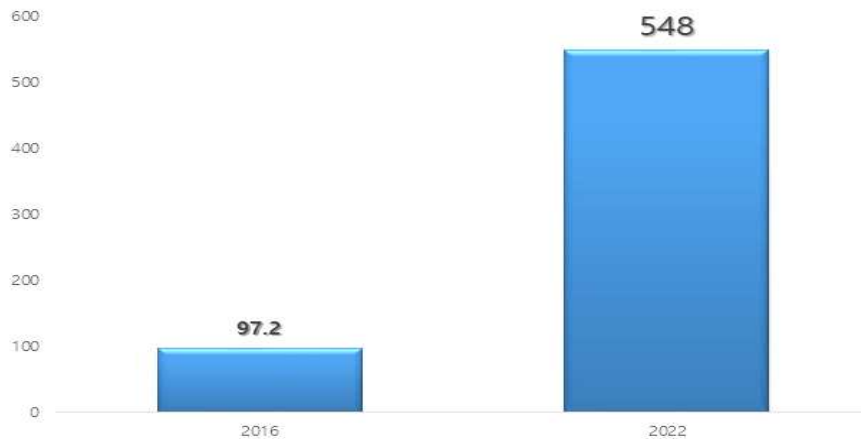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연결물류 시장, 2022년까지 연평균 33% 성장 예상

2016-2022년도 연결 물류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자료 : www.prnewswire.com

- 연결물류(connected logistics)¹⁾시장 규모가 2022년까지 연평균 3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물류 시장은 2016년 97.2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5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연결물류는 창고 관리, 추적(tracking), 재고 관리 등 물류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다방면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류일수록 연결물류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있음
- 글로벌 연결물류 시장은 IoT의 급속한 성장, 물류 운영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 증가, 스마트 기기의 발전 등의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prnewswire.com, 2017.4.25. / www.psmarketresearch.com, 2017.6.19.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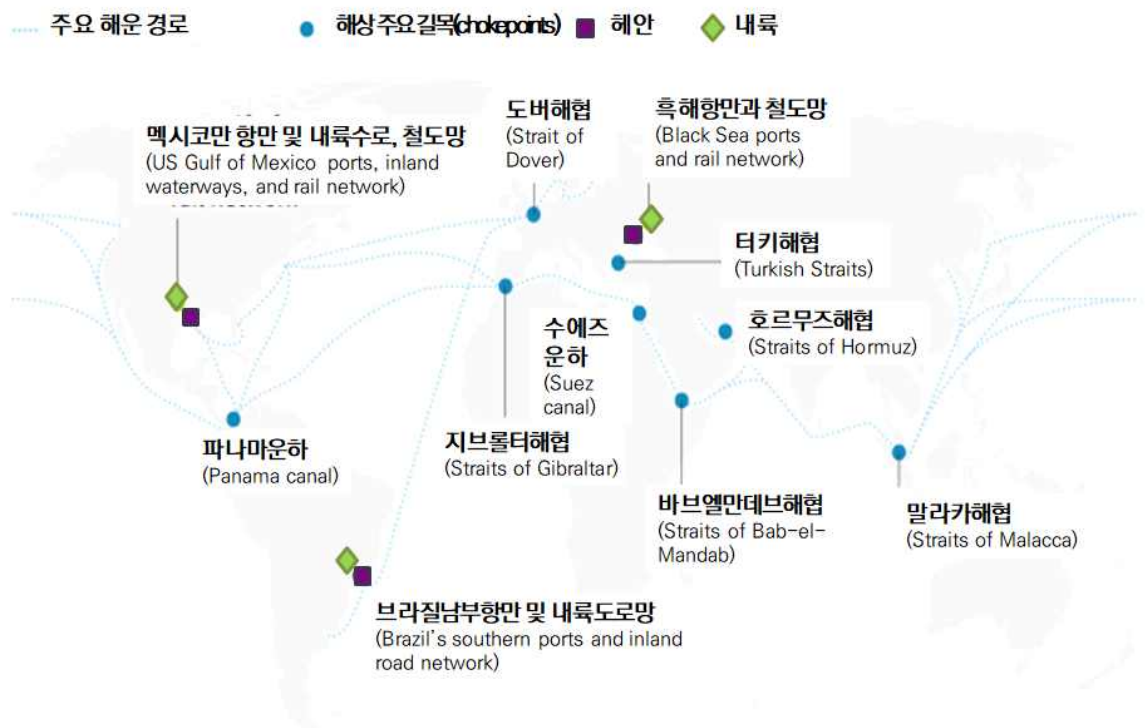
1) 사물 인터넷과 로봇, 데이터가 모두 연결된 물류세상을 뜻함. 즉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단계에서 유통매장과 물류센터가 모두 연결되는 세상을 뜻함.

물류정책 · 산업동향

기후변화에 취약한 세계 주요 길목, 글로벌 식품 공급 위협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상 결정적인 길목 역할을 하는 14개 초크포인트(chokepoints)²⁾의 기후변화 리스크 증가에 따른 심각한 단절로 글로벌 식량 공급 안정성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함
 - 14개 초크포인트 중 수에즈운하, 흑해, 브라질 도로망 등에서 자주 단절이 발생함
 - 과거 식품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
- 상당한 양의 글로벌 식품은 14개 초크포인트 중 하나를 통과해야 무역이 가능함
 - 밀, 옥수수, 쌀, 콩 등 세계 주요 곡물 수출의 절반 이상이 내륙수로를 따라 미국, 브라질, 흑해의 주요 항만 등으로 이동함
 - 즉 곡물 및 비료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4개 초크포인트 중 하나를 지나감

글로벌 식품 무역의 14개 주요 길목(Chokepoints)



자료 : theguardian.com

- 기후변화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글로벌 식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채탐하우스(Chatham House) 보고서 작성자의 한명인 Laura Wellesley씨가 언급함
 - 영국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인 채탐하우스 분석가들은 기후변화로 물류 공급망이 단절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음

2) 사전적 의미로 초크포인트(chokepoint)는 다른 지역으로 통과하는 전략적인 좁은 길목인 운하, 해협 등으로, 주로 관문, 요충, 병목지점 등으로 해석됨.



-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초크포인트의 하나 또는 여러개의 단절이 흉작과 겹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임

- 14개의 초크포인트에서 반복적인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세계 옥수수과 콩의 30%를 실어 나르는 미국 내륙 수로와 철로에서 2016년 홍수로 교통마비가 생겼고, 2012년 흑서로 철도 탈선이 발생했음
 - 파나마 운하는 가뭄에 영향을 받고, 수에즈 운하는 폭풍에 폐쇄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의 폭파 위협에 직면해 있음
 - 브라질의 진흙 도로는 종종 폭우로 패쇄되고 2017년 초 3천대의 트럭이 발이 묶였음
 - 최근에 단절된 초크포인트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브롤터해협임
-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취약한데, 그 이유는 세계 최대 식품 수입 의존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해상 병목지점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임
 - 이 지역들은 흑해로부터의 밀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0년 러시아의 심각한 흑서에 의한 곡물 흉작으로 러시아 정부는 수출 금지령을 내렸음
 - 그 결과 2011년 물가가 급등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Arab Spring) 내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또한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크포인트에서의 안정적인 식품 공급 실패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는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한국 같은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수단과 같은 빈곤국가들도 포함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주요한 식품 수입국이지만 초크포인트 위협에 대해 가장 대비를 잘한 국가로 뽑힘
 - 중국은 공급 루트를 다양화했는데,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음
 - 또한 중국은 세계 곳곳에 항만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음
- 보고서는 식품 공급 위기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이란이 세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처럼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임

■ 참고자료 : theguardian.com, 2017.6.27.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중국 알리바바 그룹, 선사 및 운송사와 협력 확대

-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에버그린을 비롯한 주요선사 및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확대, 자사를 이용하는 소규모 화주에게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대만 국적선사인 에버그린 라인은 자사의 해상화물 운송예약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근 알리바바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에버그린 라인은 알리바바 그룹의 국제무역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화주에게 해상 화물 운송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에버그린은 또한 에버그린 물류를 알리바바 회원 화주의 전용운송회사로 지정하고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기로 함
- 에버그린 라인은 해당 예약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규모 화주에게 예측 가능한 운임으로 안정적인 선복량을 제공할 것임
 -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세계 각지의 구매자로부터 소량화물이 분산·주문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대다수의 화주가 소규모 화주이며 그에 따라 운임협상 및 안정적 선박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에버그린 라인은 Alibaba.com을 이용하는 소규모 화주에게 보다 합리적인 운임으로 미리 배당된 운송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해당 예약서비스는 중국에서 먼저 시행될 것임
 - 예약이 확정되면 운임이 확정되고, 이후 시장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해당 예약이 유지되어 화주는 자사의 생산라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물류비용에 대한 관리가 원활해 질 것임
- 에버그린 라인은 또한 에버그린 물류를 알리바바 화주의 전용운송회사로 지정,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에버그린 물류는 트럭예약, 통관, 서류작업 등의 물류서비스를 적절한 비용과 요구시간 내에 국제물류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못한 화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됨
 - 해당 물류서비스는 화주가 선박예약 시 선택이 가능함
- 해당 파트너십 시작단계로 에버그린 라인은 상하이, 닝보, 세코우, 예텐 등 중국 주요항만에서 이스라엘 및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향하는 항로에 대해 부킹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알리바바는 다른 주요 선사 및 운송사와도 파트너십을 확대, 자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머스크, CMA CGM, ZIM 등 또다른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 역시 알리바바 그룹의 예약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합의했음
 - 알리바바 그룹은 또한 UPS와 FedEx와 특급운송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DHL 및 Kuehne + Nagel과는 화물운송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

■ 참고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7.6.29.



해운업·단체, 친환경 해운산업 조성 노력 지속키로

- MSC, 해운관련 단체 등 해운산업의 주체들이 산업 전체의 친환경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화 추세는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
- GIA 회원인 MSC(Mediterranean Shipping Co)는 해운산업부문의 저탄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MO의 새로운 발의안(public-private initiative)에 동참함
 - GIA(Global Industry Alliance)는 13개의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 또한 GIA 회원사들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관련 기술 개발, 운영, 대체연료, 디지털화 등에 집중
- BIMCO, Intercargo,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ntertanko 등의 해운관련 단체는 IMO에 CO₂ 저감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
- 해운관련 단체는 제안서에 IMO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채택할 것을 명시함
 - 첫째, 총 연간 CO₂ 배출량을 2008년 배출량 수준 이하로 유지
 - 둘째, 2050년까지 톤-킬로미터(tonne-kilometre)당 해운산업 전체 평균 CO₂ 배출량을 2008년 배출량의 최소 50% 수준으로 저감
 - 또한 해운관련 단체는 상기 두 가지 목표 외에 IMO가 2050년 CO₂ 배출량 저감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명시
-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는 7월 런던에서 CO₂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 이 회의는 2015년 파리 협정(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해운관련 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기술과 대체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단체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대책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참고자료 : www.loydslist.com, 2017.6.23. / www.loydslist.com, 2017.6.29.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SM상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서비스 확대

- SM상선은 9척의 선박을 추가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임
 - SM상선의 김철봉 사장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8,500TEU급 선박 5척, 5,000TEU급 선박 4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8,500TEU급 선박은 2018년 4월과 5월에 태평양 북서부 지역과 미국 동부 지역 항로에 배치될 예정임
 - 하지만 SM상선과 같은 소규모 선사들은 미국 서안에 비해 미국 동안으로 향하는 해상운송서비스가 미흡해 서비스 운임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SM상선의 이러한 행보는 수요가 큰 동남아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주1회 운항 중인 베트남 및 태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SM상선의 권기현 영업본부장에 따르면 영업 시점(작년 12월)에서 올해 말까지 3억 8천만 달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SM상선은 1~2년 내 새로운 인트라아시아 및 태평양 항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 8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권기현 영업본부장에 따르면 “SM라인이 앞으로 다른 선사들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독립적인 선단 운영은 더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선박의 크기와 적재능력이 계속 증가한다면 전략적 제휴관계가 필수적이다”고 언급함
- SM상선은 한진해운이 소유하고 있던 광양과 인천의 2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광양항에는 4개의 접안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110만 TEU임
 - 최근에는 추가적인 터미널 인수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서비스지역을 주목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joc.com, 2017.7.3.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